제46회 동성56주년

고창모양성제

The 46th Gochang Moyangseong Festival

역사는 미래다!

2019. 10. 3(목)~7(월) 5일간

모양성(고창읍성)

일자	시간대 부터	시간대 까지	세부행사명	장소
10.3. (목)	14:30	15:40	모양성제 개막출정식(거리퍼레이드)	체육관 ~ 모양성
	16:00	17:00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게양대
	19:00	19:20	개막 퍼포먼스(봉화점화, 불꽃놀이, 레이저쇼 등)	특설무대
	19:20	21:00	모양성제 여는 마당	특설무대
	21:00	23: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10.4. (금)	08:00	08:30	성황제	성황사
	10:00	12:00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재연	모양성 및 잔디광장
	12:00	14:00	중앙절 기로연(경로 효 잔치)	동리국악당 앞
	13:00	18:00	강강술래 경연대회	잔디광장
	19:00	21:00	모양성의 가을 밤	특설무대
	21:00	22:00	소원성취 야간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체험	모양성
	21:30	23:00	낭만 달빛 상영관	모양성(동헌)
	21:30	23: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10.5. (토)	21:30	23: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10:30	17:00	모양성과 함께하는 영어 무비 페스티벌	군립도서관 옆
	12:00	14:00	중앙절 기로연(경로 효 잔치)	동리국악당 앞
	12:50	13:10	공군의장대 의장사열	잔디광장
	14:00	16:00	청소년 락 페스티벌	특설무대
	14:00	18:00	흥부가 완창 발표회	동리국악당
	14:00	16:00	경찰 기마 / CSI 과학수사체험	잔디광장
	18:00	19:30	소원성취 야간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체험	모양성 및 잔디광장
	19:30	21:00	모양성 마당극	특설무대
	21:00	23:00	낭만 달빛 상영관	모양성(동헌)
	21:30	23: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10.6. (일)	09:00	14:00	고창농악 한마당 잔치	동리국악당 앞
	11:00	12:00	모양성 사또 행렬	다문화센터 ~ 모양성
	13:30	14:00	육군 군악대 공연	운영본부 앞
	14:00	18:00	흥부가 완창 발표회	동리국악당
	18:00	19:00	애향의 밤	르네상스
	19:00	21:00	모양성 전국 가요제	잔디광장
	21:00	22:00	소원성취 야간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체험	모양성
	21:30	23:00	남만 달빛 상영관	모양성(동헌)
	21:30	23: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10.7. (월)	10:00	14:00	모양성 그리기 미술대회	모양성
	13:00	16:00	천하택견 명인전	잔디광장
	19:00	21:00	모양성제 닫는 마당 (폐막 – 봉화 소등)	특설무대
	21:00	22:00	낭만충전 버스킹 및 야간 소무대 공연	모양성 및 소무대

취석정(醉石亭, 전북도 유형문화재 153호)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직원들이
고창읍 화산리 취석정에서 현안회의를 갖고
지역의 고택과 건축물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가기로 했다.
주변의 커다란 노송과 벼드나무 사이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취석정(醉石亭, 전북도 유형문화재 153호)'은
1846년(조선 명종 1)에 조광조의 제자였던 노계(蘆溪) 김경희가 지었다.
팔작지붕에 우물마루가 있고 정자 가운데를 온돌방으로 꾸민
독특한 양식의 건물로 조선시대 정자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CONTENTS

02 포토에세이
인문학도시 고창의 희망메세지

04 인사말씀
기해년 한가위 즈음

06 고창에 사는 기쁨
[고창 핫 이슈]
농민수당 실현 / 여성친화도시 / 인문학도시 / 우수기업 유치(패션그룹 LF)
[작지만 큰 행복]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창 '고령자복지주택' 본격 추진
시적 어운의 감성 안내판
한반도 첫수도 고창 지랑거리 100선
고창군 교촌마을 골목길, 꽃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변신한다
고창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명사가 이야기 하는 고창의 매력 신경수 감독

16 풍성한 한가위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이 추천하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
원하는 건 다 있는~ 고창전통시장

22 고창사람 이야기
재경 고창군민회 회장 김광중
재전 고창군민회 회장 이익희
재광 고창군민회 회장 김기동

26 고창사랑 상품권
[만화] 고창 상생경제 살림이! 고창사랑 상품권

28 일자리를 잡아라
고창군 로컬JOB(지역일자리)센터

30 의회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의장 인사말] 함께하는 의회· 생동감 넘치는 현장중심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선거구별 의원현황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6 고창이 참 좋다!
바른수산 대표 김용관
성일농장(주)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강성훈

고창소식(재외군민 무료 우편 발송)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259
홈페이지 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19. 9. **디자인** (주)들림개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 의한 3/4분기 1종 1회 홍보물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자료를 고창군청의 허락 없이 무단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기해년 한가위 즈음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재외군민,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튼실하게 여물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입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창군 또한 소외된 군민 없이 골고루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희망의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고 있습니다.

고창군수
위기상

농생명 식품산업 수도 고창군이 키워낸 수박과 멜론, 체리, 고구마, 땅콩, 보리 등은 소비자들이 뽑은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주는 미국 최대 시장인 뉴욕에까지 진출하며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즐기는 명품 과실주'로 이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경매로 1상자(2덩이) 210만원에 낙찰된 고창멜론은 또 하나의 명품 농산물로 추석명절 선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달부터 30만원이내의 농민수당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민수당은 고창땅에서 토종종자를 지키며 밤 홀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농생명을 살리는 군정을 펴겠다는 고창군정의 가치이자 마음가짐입니다.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을 주도할 고창문화관광재단도 조직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향 고창만의 문화기반에 전문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흥겨운 고창이 될 것이라 자부 합니다.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고창사랑상품권'도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창의 돈이 고창 안에서 돌고 돌면서 동네 미장원 원장님부터 자장면집 사장님, 면사무소 앞 백반집 사모님까지 얼굴이 환해지시도록, 군민들께서 올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자랑스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긍정의 힘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박수치는 고창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고창소주, 아락소주, 땅콩 막걸리를 비롯해 고창배와 멜론, 고창한우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차례상을 가득 채워서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방장산에 뜨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훤하고 둥근마음으로, 고향의 기운으로 활력을 충전하셔서 더욱 좋은 활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 핫 이슈

농민수당 실현

고창군의회, 전북최초 농민수당조례 제정

농민의 심정으로
농생명을 살리겠다는
군의회와 농민군수의 마음가짐

농민수당 공약이행

농민수당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

고창군이 땀 흘리며 농사짓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존중과 군정수행의 의지의 표현인 '농민수당'을 마련했다. 전라북도 최초다.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을 민선 ⊠기 농업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 왔다. 행정, 의회, 이장단,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고창군 농업 · 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지난 6월말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농민수당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 · 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추석이전에 고창사랑상품권을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며 고창군 농업 · 농촌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가치존중, 헌법개정, 이른바 농민헌법개정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능력발휘,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여성이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 고창

유기상 군정의 여성정책 대표 공약이 여성친화도시 고창 만들기이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조례』를 제정했다.

고창군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고창군이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고창군은 군민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을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으로 선정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담았다.

앞서 군은 지난 ⊠월 여성친화도시 군민 참여단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향상이 201⊠년에는 23.⊠% 정도였지만 201⊠년 현재는 3⊠.4%까지 끌어 올렸다.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맘껏 발휘하고 실현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성공직자등의 유리창, 유리벽 깨기를 솔선하기위해 고창군청 최초 여성서기관 승진, 여성보건소장 승진, 인사담당 과장의 여성보직 등 과감한 여성발탁 인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1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촉식

여성공무원 간담회

여성회관 교육 개강식(여성친화도시 설명회)

인 문 학 도 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문학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높이기

2019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 조례 제정 종합 발전 계획 수립

'고인돌 왕국' 고창군이 역사, 문학, 철학 강연과 다양한 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도서전 등을 열며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고창군은 매주 시낭송으로 군정 현안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시 낭송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 위주의 기존 회의 분위기를 바꿔 소통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게 했다.

또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전해 듣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성수 소설가, 정진홍 교수, 조용헌 교수의 명품 강연이 진행됐고, 8월에는 김인석 삼보죽염 대표(건강), 10월 방송인 이호선 교수(행복) 등 사회 각 분야 전문 명사들을 모시고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9 한반도 첫 수도 포럼-정진홍 강사

이밖에 전국에서 3번째(군단위 첫 번째)로 '2018 고창 한국지역도서전'을 성공적으로 열며 책 읽는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고창군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365인문고창'사례 발표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백재욱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답은 문학적 감수성과 역사를 통해 얻는 지혜, 깊이 있는 질문과 사유에서 나오는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만의 특성화된 사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기업 유치

패션생활문화 기업 LF, 선운사와 손잡고 힐링관광 투자키로

대장금등 드라마 촬영의 명소
선운산 녹차밭,
LF와 만나 품격있는 힐링관광지로
새로운 관광 문화 창출

2019. 7. 10. 고창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헤지스와 마에스트로 등으로 유명한 생활문화기업 LF가 '선운사 녹차밭 문화관광산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선운사 녹차를 토종 명차로 키워내 제품 생산과 체험, 시음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운사 천왕문 앞에서 맑은 계곡을 건너 도솔암 쪽으로 걷길 10분여.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느낌의 차밭이 펼쳐진다. 어린아이 키보다 작은 차나무가 줄을 지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차밭을 경호하듯 빙 둘러싸고 있다.

고창 출신의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 선생이 쓴 이재난고에서도 선운사 차의 유래와 제조법의 특색, 그 차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고창의 삼미가 풍천장어, 복분자, 선운사 작설차로 꼽힐만큼 선운사 녹차는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특히 능성 구(綾城具) 3세조 연(珚) 면성 부원군(좌정승) 묘소가 천하

선운산 녹차밭

명당 터(아산면 반암)에 안장되어 고창과의 인연이 있는 LF그룹(회장 구본걸)은 구 LG패션으로 헤지스, 마에스트로, 라푸마 등 패션산업을 선도해 오다가 최근 생활문화와 고급 기호식품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산규모는 2조 1800억원이다. LF그룹의 핵심 회사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로는 (주)LF가 100%출자한 (주)LF푸드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LF패션, (주)LF코프, LF Trading (Shanghai) Co., Ltd., (주)라푸마코리아 등이 있다.

작지만 큰 행복 – 첫번째 이야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창 '고령자복지주택' 본격 추진

국토부 공모사업 국비 132억원 확보

어르신 간담회

효자군수를 표방하는 유기상 군수는 **80**세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100**세 장수노인 마을잔치, 노인회관 건립 등 배려의 노인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창군보건소와 복지관 등이 위치해 있는 '사회복지 시설지구'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56**억원 중 **13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10**층(**8**평형, **11**평형) **120**호 규모다. 올해 기본실시설계 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1**년까지 건축 완료,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와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현관에는 의자가 있고, 문턱이 없다. 또 노인의 키에 맞도록 싱크대의 높이를 낮추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등이 설치된다.
고창군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역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과 연령,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고안된 환경을 말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문턱제거,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베리어프리(무장애)'설계가 도입된다.
또 **1**층에는 공동세탁실, 푸드마켓, 교육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주거와 공동활동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고창형 노인복지주택이 선보일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오랜 세월 사회의 주역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온 고령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예정지

작지만 큰 행복 – 두번째 이야기

시적 여운의 감성 안내판

'곧 그리워질 고창' '내마음의 고향 고창'군 경계 안내문구 변경

고창군 경계 안내문구

고창군으로 들어오는 길목 안내 표지판이 색다르게 바뀌었다.
고창군 경계 주요도로 안내 표지판이 감성이 담긴 문구로 바뀌어 방문객들과 군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내판 문구는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선호도 조사로 "곧 그리워질 한반도 첫수도 고창","내마음의 고향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인사말로 선정하여 고창군 방장산 솔재 등 **6**개 군 경계 안내표지판 문구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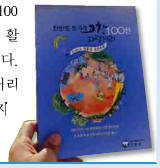
작지만 큰 행복 – 세번째 이야기

한반도 첫수도 고창 자랑거리 **100**선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과 사람이 살기 좋은 고창

www.gochang.go.kr
고창군 홈페이지 ▶ GO! 고창 ▶
일반현황 ▶ 고창자랑거리100선

고창읍성, 선운사, 고인돌, 동학농민혁명… 고창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100대 자랑거리가 책으로 나와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군민공모와 고창군홍보자문단(고창문화연구회 자문)을 통해 지역내 유·무형 자산을 총망라한 100선을 선정했다. 엄선한 자랑거리 100선은 수만 년 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성과에 대한 애정과 긍지,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시작이다.
고창자랑거리 100선에 선정된 아이템에는 △고창읍성△고창수박△선운사△고창고인돌△국빈 밥상에 오른 고창한우(트럼프한우)△고창모양성제△청보리(메밀밭)△신재효와 판소리△고창동학농민혁명△고창복분자가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고창군은 고창자랑 100선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자랑거리 100선은 고창군청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작지만 큰 행복 – 네번째 이야기

고창군 교촌마을 골목길, 꽃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변신한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2억5000만원(국비 20억원 등)을 투입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골목정원을 만든다.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는 마을 한가운데 향교가 있고,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 나들이객이 몰려오는 곳이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낡고 오래된 주택과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로 밤에는 우범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들고양이들의 아지트였던 마을 뒷산(성산)을 모두 함께 산책하고 즐기는 건강한 숲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아이 유모차와 장애인들의 휠체어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누구나 편한길'이 만들어진다.

특히 마을입구 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빈 공간은 인근 학부모의 쉼터 공간과 주민카페로 변신한다. 벚꽃 동산에 산책하러 오는 방문객들은 웰컴센터에서 마을주민이 만든 화분에 메시지를 적은 뒤, 이를 마을 곳곳에 놓아두면서 꽃과 나무, 사람이 어울리는 골목길이 탄생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주민들과 공모사업 선정, 지역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점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마을은 도시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세포와 같고, 그래서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 수 있다"며 "마을 공동체에 주민참여를 높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밝고, 건강한 한반도 첫 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교촌마을 현지전략회의

작지만 큰 행복 – 다섯번째 이야기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를 꿈꾸는 고창식품의 싱크탱크, 가공식품 농가들의 친구

고창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소 장비를 이용해 동결건조 딸기칩 만들어 큰 수익을 얻었어요"

고창지역의 특산품인 복분자, 오디 등 베리 작물 수확이 마무리 되면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사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고창군민에 대한 장비 사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농민들이 동결건조를 맡길 때 소량(5kg 미만)을 먼저 가공시키고, 맛과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데 이 과정을 전부 무료로 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까지 서비스를 30여 차례 제공해 홍삼 · 복분자 혼합음료와 복분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및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출시했고, 사과, 배, 참외, 바나나 등 과일 칩 4개 제품이 출시 단계에 있다.

고창군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올해로 출범 10년차를 맞이하는 고창군 출연 연구기관이다. 모두 50여종의 최신 연구장비와 약 20여종 위탁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관내 농가 및 영세 식품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식품 공동가공센터를 구축하고,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최신식 동결건조, 음료생산 라인(파우치, 유리병, PET병) 및 추출 · 농축 등의 설비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조성욱 소장은 "농민들의 다양한 식품 아이디어를 연구원들에게 제안하면, 레시피를 개발해주거나 시제품도 만들어 준다"며 "고창군의 농생명 식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구소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지역기업, 학교, 행정과 함께 올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전경

보리새싹 동결건조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

사람, 하늘이 되다

명사가 이야기 하는 고창의 매력
신경수 감독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125년을 지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낡은 중세사회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소외받았던 이들의 이야기다. 또 일제의 침략에 맞선 반일 구국항쟁이었다. 그 중심에 의향 고창 사람들이 있었다.

최근 종영된 SBS대하사극 '녹두꽃'이 고창에서 촬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매주 금, 토요일 저녁 녹두꽃과 함께 한 시청자들은 때로는 전율했고, 때로는 절망했으며, 때로는 새 희망을 느끼기도 했다.

드라마에 등장했던 고창읍성 평근당과 맹종죽림은 인증샷을 찍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제작기간 총 200일. 100여명의 촬영팀을 이끌고 드라마 현장을 진두지휘한 녹두꽃 신경수 감독을 만났다.

Q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다뤘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요?

A 드라마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분노, 좌절,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선대의 젊은이들이 겪은 고군분투와 좌절, 도약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깊은 울림과 희망, 격려를 던져줬으면 했어요. 또 친일파 등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는 바람에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Q 작품이 큰 호응으로 마무리 됐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큰 숙제 하나를 끝낸 뿌듯함이 커요. 그간 드라마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추가수익을 내야 하는 제작현실에서 일본을 나쁘게 묘사하는 게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우리 역사 속에서 소외받았던 이들을 되새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Q 평소 고창에 인연이 있었나요?

A 전남 고흥이 고향이고, 할아버지는 고창고보를 졸업하셨어요. 저는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고창이나 전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친숙했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농민혁명 봉기재현 행진에 참여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 하던 차에 정현민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어요.

촬영현장에서 신경수감독

무장읍성 그네씬

Q 고창의 다양한 명소(고창읍성, 무장읍성, 청보리밭, 선운사 등)가 등장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고창지역의 매력과 인상 깊었던 촬영지가 있나요?

A 지금까지 사극을 찍으면서 전국의 많은 곳을 가 보았지만 확실히 고창은 남다른 기운이 있어요. 서울에서 밤새 달려 새벽녘 고창에 딱 들어서면 피곤한 일정에도 가뿐한 느낌이 들었어요. 촬영감독님들도 성곽과 소나무, 대나무숲이 예뻐서 많이 좋아했었어요.

인상 깊었던 촬영지로는 무장읍성 객사 뒤편 오솔길이 참 좋았어요. 거기서 백이강과 송자인의 그네씬을 촬영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셨죠(웃음). 해질녘의 청보리밭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Q 끝까지 드라마 녹두꽃을 응원해 준 고창군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위대한 민중 혁명가 전봉준 장군과 손화중 장군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준 아름다운 고창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많은 고창군민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100여명의 스탭들을 대표해서 고창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창의 매력을 곳곳에 알리는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이 추천하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름을 미리 배웅하고, 조금 때 이르긴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가을을 기다리는 여행지. 한반도 첫수도 고창으로 가보자.

1코스 고창 블로그 기자단 **하수민 기자**

'소금을 뿌렸을까, 팝콘을 소쿠리 채 쏟았을까' 고창 학원농장 해바라기·메밀꽃

지난 봄 싱그러운 초록빛의 물결로 넘실거렸던 고창 학원농장이 오색 빛으로 화려하게 변신했어요.
100일간(10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창 학원농장 꽃잔치'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메밀꽃이 20만평의 구릉지에서 피고 지고를 반복해요.
해바라기와 메밀꽃은 개화 절정기가 보름 정도인데요. 학원농장은 개화시기를 7개 구역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꽃잔치 기간에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언제나 2~3만평 규모에서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한쪽에선 메밀꽃도 절정을 뽐내고 있는데요. 가을에 하얀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메밀꽃은 '앉은뱅이 들풀'로도 불려요. 그 꽃이 하얗게 피어 초록의 이파리와 어우러지면 정말 도깨비의 사랑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2코스 고창 블로그 기자단 **이주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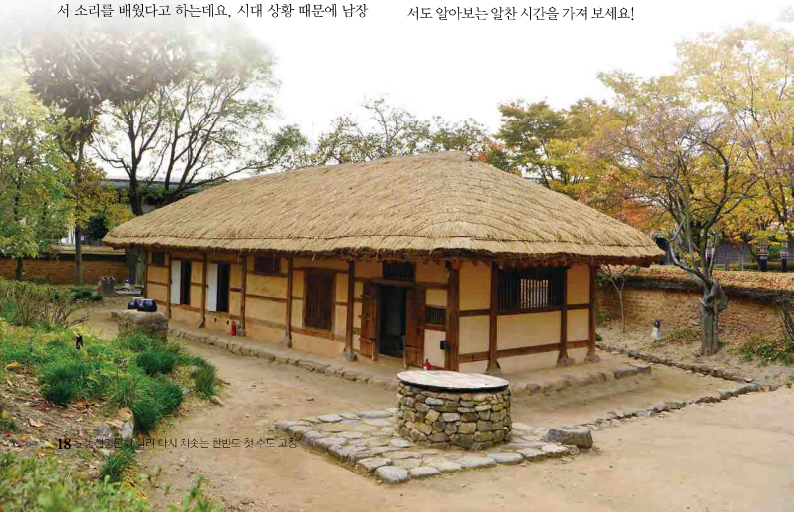
"질곡의 역사를 묵묵히 견딘 고목에 기대어 보세요" 무장읍성

저 나무는 몇백년이나 같은 자리를 지켰을까. 고색창연한 무장읍성 객사의 툇마루에 앉으니 낡고 닳은 서까래가 말을 걸어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연휴에 가족들과 무장읍성에 꼭 한번 들러 보시길 추천합니다.
조선시대 호남방어 요충지 무장읍성의 정문은 적들이 침입하기 어렵게 입구가 높고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장읍성은 일제강점기 읍성철거령에 따라 성안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객사는 면사무소 운영됐데요.
무장읍성 방문객은 읍취루에 올라 연못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쓰였던 것이 2015년에 발굴조사에 우물과 함께 드러났다고 해요. 발굴팀이 운동장 흙을 걷어내고 연못에 물을 부으니 100여 년간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연꽃의 씨가 발아해 생명력을 드러냈다고 해요. 질곡의 역사를 간직한 무장읍성. 고창에서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으로 추천합니다.

3코스 고창 블로그 기자단 **배유미 기자**

한국문화의 판을 바꾼, 신재효 고택

고창읍성 앞에 있는 고창 신재효 고택을 소개합니다! 고창 신재효 고택은 고창판소리박물관 옆에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동리 신재효 선생이 1850년 경 지었어요.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요.
원래는 주변의 물을 끌어다 마루 밑을 통해 서재 밖 연못으로 흐르도록 한 운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사랑채는 신재효 선생이 말년까지 살면서 여섯 마당 판소리를 정리한 의미 있는 곳이에요.
동리 신재효 선생은 당시 광대소리라 하여 천대받던 판소리를 우리말과 글로 남겨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어요. 동리 신재효 선생은 남성 가창자가 전부였던 시대에 여성과 아동을 가창자로 키우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고 해요.
조선 최초의 여류 소리꾼인 진채선이 바로 동리정사에서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시대 상황 때문에 남장을 하고 무대에 서서 장원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궁궐 대령기생에 임명돼 운현궁의 음악을 담당하는 궁녀가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영화 '도리화가'로 만들어졌지요.
'한국의 셰익스피어' 고창 신재효 고택의 방과 마당, 연못 자리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동리 신재효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알찬 시간을 가져 보세요!



4코스 고창 블로그 기자단 **이창림 기자**

숨겨진 작은 보물 같은 역사 공간 '취석정'

고창에 처음 내려왔을 때, 수려한 풍경에 반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작지만 고풍스러운 정자, 취석정(醉石亭)을 소개합니다.
취석정은 조선 명종 1년(1546년)에 노계 김경희가 지었고 고창읍성 남쪽 노동저수지 근처에 있어 읍내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취석정은 멀리서 보아도 운치가 있으며 흙담 사이의 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한 정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취석정은 중국 시인 도연명이 술에 취해 집 앞의 돌 위에서 잠들었다는 고사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취석정 한편에는 커다란 바위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 그 중 하나에 커다란 글씨로 취석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취석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정자 안에 작은 온돌방이 있어 추운 겨울에도 정자에서 시 한 수를 읊조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방의 문들을 위로 고정하여 바깥풍경을 바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열린 정자 안에 있으면 마치 신선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자 옆으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 소리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취석정은 비록 작은 정자이지만, 조상들이 즐겼던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원하는 건 다 있는~

고창전통시장

GoChang Traditional Market

시대가 변해 예전만큼 명절 분위기는 나지 않지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도 있듯 수확의 계절에 맞는 추석은 어느때 보다 풍성함이 느껴져야 하는데요. 민족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해 서민 가계는 차례상 준비를 앞두고 시름이 늘어만 가네요. 대형마트도 좋지만 올추석은 넉넉한 인심과 소박한 가격의 전통시장에서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창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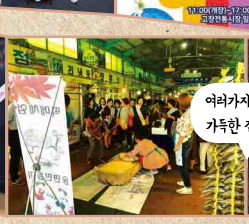
1965년에 형성된 고창전통시장은 무려 55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써 신선함과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시장문화행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추억이 담겨 있는 시장

고(古) 고(古)장

재래 시장 장보기 캠페인



떡매치기 체험

여러가지 체험이 가득한 전통시장

명절 송편빚기 체험

조선시대 장터풍경 포토존

2019 고창전통시장 토요문화장터

풍바와 함께하는 장터세상

건강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옛시장 모습이 가득한 고창전통시장

반찬

잡화

대장간

맛

방울기정떡

바지락라면

오감자극 맛집이 있는 시장

아구찜

육회비빔밥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 같아요.

장어탕

상경살

신선함을 맛보는 시장

생선회

장어빵, 꼭꼭차빵

재경 고창군민회 회장 김 광 중

김광중회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아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의 명으로 지어진 『용비어천가』의 제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고창땅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산하와 바다를 경영하며 살아온 유서 깊은 땅입니다. 이런 우리 고창이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 속에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고창에 인구 유인책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맹자가 말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입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먹고살 것이 없으면 일정하게 마음 붙이고 정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고창군민회는 다양한 애향봉사사업을 통해 우리 고창과 고창살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창산 농축수산물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홍보입니다.

우리 군민회는 2018년 1만박스(시가 약3억)에 이르는 멜론부터 김장용 절임배추, 설선물용 고창잡곡과 지주식 재래김 등을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고창애플수박(약 5,000박스)을 시작으로 해서 고창산 농축수산물을 집중적으로 판매알선 홍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창의 역사문화관광 홍보 주력과 고창생태계 지키기입니다.

천연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창은 역사문화관광의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회는 "#고창알찾소"라고, "우리 고창을 알고 찾고 소개하자"는 모바일 역사문화관광 홍보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8일(화) 저를 포함한 1호 투어단이 실제 고창 관광에 나섰으며 그 이후로도 고창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창의 문화관광홍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고창의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밴드금요장터를 이용한 고창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판매입니다.

회원수가 5,600여명이 넘는 재경고창군민회 밴드에 매주 금요일 #밴드금요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고창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우리 고창인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에서는 많은 품목을 밴드금요장터에 올리고 재경에서는 많은 소비 및 홍보를 통해 재향과 재경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굳건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고창은 영원한 내고향입니다.
재경 30여만명이 서로 화합하고 똘똘뭉쳐서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고창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터전을 자주 마련하여 함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회의 이러한 애향봉사사업들이 결실을 봐서 우리 고창의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든 기여를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지금 우리와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자손 대대로 영속할 우리 고창이 영원히 번창하는 생명의 땅이 되도록 해서 미래의 용비어천가가 고창에서 높게 울려 퍼지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우리 군민회의 목표이자 재경고창군민회 회장으로서 저의 포부이자 희망입니다.

재전 고창군민회 회장 이 익 희

이익희회장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군수인 대한민국 고창시대"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제47대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6만여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전고창군민회 회장 이익희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속 같다" 라는 말처럼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재전고창군민회는 타향인 전주근처에서 생활하는 고창인들의 애환을 달래고 친목을 돈독하게 하며 고창인이라는 자부심과 고향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1967년 7월에 고 이상기 초대회장님을 중심으로 창립하여 52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우리가 태어나 꿈과 희망을 품고 자란 곳이자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온 뿌리이며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고창에서 태어나 자란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인 고창이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이며 판소리와 농악 등 무형문화유산까지 간직하고, 자랑스러운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고창의 농특산물을 타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과 홍보를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향심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고창에 가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이 생겨나고 어느 지역보다 번창되고 잘사는 자랑스러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우리 재전고창군민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하여 고창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6만여 고창군민과 재전고창군민회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고창군민회 회장 김 기 동

김기동회장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광군민회장 김기동 인사 올립니다.

광주는 고창~담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30~40분 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쇼핑과 병원이용 등 광주가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광주는 행정구역이 다릅니다만 고창과 가까이 있어서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주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천한 제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여 10년이 되어 가지만 서울이나 전주에 비해 젊으신 향우들이 많고, 고향과 너무 가깝다보니 참석율은 저조합니다만 끈끈한 유대감과 단결력으로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향우회도 고향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것인가 지혜를 모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창 상생경제 살림이!
고창사랑 상품권
다함께 잘사는 고창을 만들어요!
모양아! 자~ 선물이야~
두둥!
우와! 뭔데? 상품권!!
깍!
어머!!
고창경제 살림이!
고창사랑 상품권
우와!
대박!
실화냐?
이건 고창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인데 액면가의 7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구입은 현금으로만!
유효기간 5년!
현금영수증도 OK
근데, 이 상품권 어디에서 쓰지?
궁금...
어려워..
걱정하지마~
고창에서 1,600개 정도 되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
현금과 똑같아~
○ ○ 마트
X X 식당
왕 갈 비
△ △ 서점
◇ ◇ 주유소
왜냐구?
마트, 식당,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거의 왠만한 상점에서 다 쓸 수 있거든!
카드보다 더 환영받을걸~
모양아~ 우리 어디갈까?
고창읍성이나 박물관 어때?
그거, 좋지!
고창읍성 입장권 3천원 구매시 2천원 고창사랑상품권을 주고,
고인돌박물관 입장권 3천원 구매시 2천원 고창사랑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
우와! 짱 멋지다!
어서 가보자!!
나도 사야지!
앗싸!
지금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5% 할인
놓치지 마세요!!
(단, 우체국은 안돼요.)

따뜻한 일터,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

고창군로컬JOB (지역일자리)센터

*고창군민의 일자리를 위해 개소한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월곡뉴타운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상담실과 2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마트를 운영하던 김OO(38세)씨는 마트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리를 하고 귀농을 결심하였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 귀농 및 일자리 알선을 문의를 해봤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언론을 통해 고창군로컬JOB센터를 접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귀농과 일자리를 상담받았다. 상담 후 바로 OO면 수박재배 농가에 일자리를 알선받게 되고, 짐을 꾸려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Tip

고창군로컬JOB센터
상담 문의 063-561-5234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서울에 살던 김씨가 귀농을 꿈꾸며 고창에 내려와 찾게 된 곳은 지난 4월 개소한 고창군로컬JOB센터.
센터를 찾아와 상담 후 이력서 작성, 동행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함께 해준 상담사 덕에 김씨는 고창의 한 수박 재배 농가에 취업하게 되었다. 김씨는 고창에 내려와 지역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세세한 일자리 정보를 보유한 로컬JOB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답한다.
지난 4월 조용했던 월곡뉴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따뜻한 일터, 함께하는 일자리'를 위해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가 개소했다.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 개소한 고창군로컬JOB센터는 '2019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비 · 군비 총 3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고창군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고창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관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창군 구인처 및 구직자 발굴,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발굴, 동행면접 등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농가일자리 발굴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 지역민을 활용한 '고창군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을 운영하여 비경제활동인구,경력단절여성, 청년층을 취업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고창군로컬JOB센터는 2019년 7월 31일 기준 총 776건의 구직자 발굴, 182건의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819명에 대해 구인을 했으며 839명을 알선, 총 39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전년도 동기간 대비 취업실적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자리발굴과 구직자 발굴은 약 2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1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0개의 기업에 구직자 150여명이 현장 상담 및 면접을 통해 1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향후 로컬JOB센터는 이동상담과 취업박람회를 정례화하는 등 군 전체 지역과 지역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뛸 계획이다.
초대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을 맡은 김희진 센터장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정책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김희진 센터장과 일문일답

Q 고창로컬JOB센터의 센터장이 된 소감은?

로컬JOB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고창군이 변화하는 미래에도 살아남으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인력수급이 쉽고 빠르게 하고, 구직자에게는 마음 놓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안정된 일터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장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로컬JOB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Q JOB센터의 주요업무와 향후 계획은?

고창군로컬JOB센터가 지역 3호(장수, 완주, 고창)로 개소했습니다. 우선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홍보해 고창군으로 이주예정인 기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타이밍에 맞춰 제

공해 고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동행면접, 채용행사 진행, 취업프로그램운영, 일자리 협력망구축 등을 통해 로컬JOB센터가 일자리 관련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자리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힘 쏟을 계획입니다.

Q JOB센터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에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해 실업률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민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민 측면에서는 구직자와 로컬JOB센터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적성에도 맞는 취업을 연계해 이직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상담

협의회

한전단체사진

고인돌창출단 단체사진

의장 인사말

함께하는 의회 · 생동감 넘치는 현장중심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 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창군의회는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전반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현장위주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고창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고창군의회 의장 조 규 철

의회

제8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방침

- 실천하는 의정 찾아가는 의회
- 화합하고 신뢰받는 책임의회 구현
- 함께 꿈꾸고 더불어 이루어가는 동행의회

2019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9월~12월)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책임행정 구현
- 제2차 정례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예산안 심의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군정질문 및 답변
-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의회

선거구별 의원현황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26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제265회 임시회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

제265회 임시회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공음초등학교 학생 의회 견학

제265회 임시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바른수산 대표 김용관

전국 최고 품질의 수산물 전문점으로 만들고 싶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가공하는 일이여서 더운날씨나 추운 날씨나 물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바지락을 폐사시키는 일도 있었고, 처음 택배를 시작할 때는 하루 하루 납품 물량이 너무 적어서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위 어르신이나 삼촌들께 노하우도 듣고 푸념도 하면서 이겨나가고 고창 바지락이 중국산이나 타지역 보다 맛좋은 명품 바지락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하나 고객을 확보했으며 차츰 단골 주문 식당이나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하전에 내려온 첫 해에는 본인의 인건비도 벌 수 없을정도로 초라한 매출이었지만 한해 한해 100% 이상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작년에는 택배 매출 4억 이상을 올리며 직원도 2명을 채용하는등 지금도 계속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김대표는 현재는 4년정도 임대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2~3년 후에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더 큰 공장을 짓고 바지락 뿐만 아니라 동죽, 갑각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가공 포장해서 전국에 납품하고 지금은 잘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 바른수산의 수산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고창의 수산물 주문할 수 있고 맛볼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창이 왜 좋을까? 물음에 김대표는 웃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꼭 어촌만이 아니고 농촌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논, 밭 이런게 한정적이지만 고창은 다른 것 같아요. 토질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특작들 수박, 멜론, 고구마 이런 농산물도 전국에서 품질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귀촌이 많은 것 같아요. 귀어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여서 텃새? 라고 해야할까 이런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젊은분들도 이 근처에 귀어 하신분들도 여럿되구요. 여기는 일손이 부족해요. 모나지만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런 마을~ 하전인 것 같아요."

갯벌에서 바지락 채취 과정

품질 좋은 바지락 선별 과정

바지락 운송 과정

김용관씨는 심원 하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거쳐 중학교를 마친 후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하며, 10여년을 타지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오면서 차츰 타지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곤 했다고 한다. 타지에서의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다 가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와 바지락, 동죽을 캐는 등 부모님 일손을 돕기도 하고 귀어한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의 어울림은 김용관씨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삶의 힘이 되어주었다.

항상 고향을 마음에 두고 살아오던 김용관씨는 가끔 내려와서 봐온 고향에서 활력 넘치게 생활하며, 보람차게 자신들의 일을 꾸려가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신선한 자극과 가능성을 발견했고, 4년 전인 2015년 여름 귀어를 결심, 본격적으로 바지락 사업에 뛰어들었고 바른 수산 대표를 맡아 바지락 뿐만 아니라 각 종 싱싱한 수산물을 가공포장하여 전국 택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어업에 접목하고 실현해가고 있다.

물론, 지금의 이러한 성공의 밑바탕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다.

김용관씨가 귀어를 통해 얻은 것은 비단 사업의 성공만이 아니다. 그는 고향에서의 성공보다 더 좋은 건 이곳에서의 삶의 질이라고 말한다.

탁트인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몸은 비록 고달프지만 함께 사업을 일궈가는 형님과 어머니가 있어 사업 성공에 따른 성취감은 물론, 마음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어촌계에서 같이 활동하는 또래의 선후배들과의 일과 후 저녁의 간단한 술자리는 타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식과 행복감을 준다고 한다.

고향은 그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타향에서 지친 심신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다. 그는 이러한 고마운 고향에서 다시금 새로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바른수산
위치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서전길 56
문의 : 063)562-0624

성일농장(주)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강성훈

고창 미니애플수박 재배 젊은 창업농부~!

한 젊은 청년이 멜론만한 작은 수박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하우스에서 걸어나온다. 무더위 속 하우스에서 나오며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고등학생 같은 장난기 어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고창에서 사과처럼 깎아 먹는 수박인 미니수박(애플수박)을 재배하는 젊은 창업농부 강성훈(만25세)씨의 첫 인상이였다. 강대표는 고창영선고등학교 관상원예과,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성일농장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고창애플수박 작목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강대표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요즘의 가구 당 인구수 변화 트렌드에 맞춰 이러한 가구들이 기존의 커다란 수박을 소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규모 가정에 알맞은 사과처럼 깎아 먹는 미니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생산판매에서 벗어나 고객의 수요 특성을 간파한 강대표는 2017년 첫 고창애플수박을 생산하였고 고창애플수박작목반을 결성하여 12농가에게 재배기술을 전파 및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현재는 소비자와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험농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5만평 면적에서 전문 농사꾼들이 생산한 애플수박은 강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특별한" 수박이다. 강대표가 자신있게 자랑하는 이 특별한 수박은 800g~1.5kg의 가벼운 무게로 껍질이 얇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 음식물 쓰레기는 더 적은 친환경과일이라는 특징과 함께 우수한 고창지역의 자연환경속 수박전문 베테랑 농부들이 직접관리하며 키워내 타 지역 제품보다 당도가 13~15Brix로 더 높아 우수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니수박은 기존 수박보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맛 또한 여느 수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요즘 백화점과 마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귀농을 통해 고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더불어 가족과 함께 고향에 살며,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작목반 베테랑 농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가며 서서히 극복해나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귀농에 대한 소회를 밝힌 강성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판로개척과 유통·홍보에 도움을 준 고창군과 재경고창군민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일농장(주)농업회사법인
위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685
문의 : 063)562-7728